

한라시론



강 종 우
제주사회정책연구원장

전국민 고용보험이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당장은 예술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적용하니 더더욱 그렇다.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플랫폼노동처럼 오랫동안 독립사업자, 아니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가입조차 못했던 분들이다. 예술업계 종사자가 7만 명이라면 특고 근로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소위 특고에는 고용돼 일은 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도그마. 그래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수 십 년 방치돼 왔다. 아닌 말로 대한민국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주목하라!

‘2등 국민’으로 취급받아 온 셈이다.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1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예술인에게 확대할 모양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만든다고 나서기도 한다.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상자들의 소득과 문제라는 매듭이 풀려야 고용보험 징수가 합목적으로 가능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재원 확보와도 연동된다. 예술인의 70% 이상이 프리랜서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다. 시작이 반이다. 누가 뭐래든 이번 기회는 남다르다.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리트머스이기 때문. 특히 20여년 실업극복운동과 연을 맺어 온 처지라 예상일 같지 않다.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 하나로 프랑스 사례를 공유해 본다.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모델은 비

교적 단순하다. 먼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활동계획을 협동조합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3년 동안 자신의 꿈을 조립해본다. 이 동안은 사업가 ‘직원’의 신분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는다. 사업가 ‘직원’에서 사업가 ‘조합원’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 이후 매출의 10%를 회비로, 보험료 3.3% 등을 조합에 내게 된다. 이런 개개인의 매출 일부가 모여 사업고용협동조합 전체의 매출을 이루는 구조.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서 작성·계산서 발행·세금처리 같은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됨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한 마디로 프리랜서나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지위와 동시에 사업자라

는 이중적 지위를 보장해준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코파남’이다. 2004년 설립돼 사업가 직원은 450명이 있고 조합원은 195명에 이른다. 컨설턴트, 번역가, 공예가, IT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플리마켓 셀러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는 오늘, 그나마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숨은 공신은 바로 전국민 건강보험. 되레 대한민국을 보건의로 방면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었다. 이제라도 K방역에 버금가는 고용안전망이 절실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뉘엿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탈산업화나 디지털화 같은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길을 한 발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서라도.

사설

학생 순차적 등교, 방역 느슨하면 안된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속출하는 등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등교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부터 초3~4, 중2, 고1 학생 2만6033명이 등교 개학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만3538명, 중학생 6322명, 고등학생 6173명입니다. 지난달 20일 고3을 필두로 27일 고2, 중3, 초1~2, 유치원에 이어 3차 등교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방한대로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격주 등교를 진행합니다.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수 900명 이상(제주시 12개교, 서귀포시 3개교),

중학교 700명 이상(제주시 9개교), 고등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교(8개교)입니다. 이에 따라 3일에는 고등학교 8개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걱정입니다. 최근 제주를 여행했던 경기도 군포시와 안양시 교회 목회 모임 일행 25명 중 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감염이 빠르게 번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학생 확진자 발생 등으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수업을 하자마자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선 안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이래서야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처럼 사립학교도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제도를 제대로 이행않는 겁니다. 법정부담금 미납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매년 도민 혈세납입도 엄청난 문제의 심각성이 큼니다. 최근 제주도 결산감사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감사에서 법정부담금의 사립학교 납부액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지켰습니다. 도내 10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017년 36억5798만원, 2018년 38억373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8억1686만원인 반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7년 3억5427만원(9.7%), 2018년 3억44만원(7.9%), 2019년(가결산 기준) 2억3687만원(6.2%)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들이 매년 부담금액을 늘

려 내기는 커녕 줄였고, 납부율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액수만 2017년 33억371만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 등으로 최근 3년간 100억원 넘는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사립학교입장에선 보험료 인상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부담 몫을 도교육청 재정으로 계속 메울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방치되면 사립학교의 도덕 불감증과 함께 일반학교 피해, 도교육청 재정악화 등 연쇄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재단 관리 감독 강화와 다른 예산 감축 형식의 패널티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단순 권고에서 강제화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떠오르는 감정



박 소 정
편집부 기자
cosorong@ihalla.com

달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5%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소식을 접할 때면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22.7%),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16.3%) 등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물리적 방역만큼 심리적 방역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원을 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월부터 심리지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석달여 동안 상담건수가 3600여건이 늘어났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코로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이들의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심리방역도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뉴스-in

“군포 확진자 제주 접촉자 이상 없다”

지역사회 감염 없어 안도

○…제주도 보건당국이 경기 군포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일행과 관련, 제주지역 접촉자 67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안도. 이와함께 현재까지 파악된 자진신고자 13명도 모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 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앞서 지난 2일 “해당 사례와 관련한 역학조사 상황을 볼 때, 입도 전에 감염돼 잠복기를 거치고 전파력이 있는 시점에서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 백규탁기자

전국 곳곳서 제2공항 반대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제2공항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제주와 서울, 세종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개최.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두기 파켓시위 등이 진행되며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려 제2공항 반대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이상민기자

“현충일 추념식 간소하게”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올해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 오는 6일 서귀포시충혼묘지 총합 앞 광장에서 치러지는 제65회 현충일 행사는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및 보존·안보단체인·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추념식을 거행. 서귀포시 관계자는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다”고 소개. 현영종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궁 성준(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6월 4일

며느리	허영숙
딸	김윤식
	김원건
	김상현
	김상언
손자	김동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193 사기
- 피 고 인 박경애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3.

판사 박 준 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